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18차 회의

1. 일 자 2011년 7월 2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준 일	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5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현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1.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현재 통안증권 대상기관 선정시 기존 대상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평가하지 않고 구분하여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규 신청기관은 대상기관 선정시 배점이 제일 높은 ‘당행과의 거래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 대상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대상기관 선정결과 발표시 탈락기관에 대해 탈락 이유를 통지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선정결과 발표 후 탈락기관이 문의할 경우 탈락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대상기관 선정 이전에도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 미달 여부를 알려주는 등 금융기관에게 선정 관련 필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으나 중앙은행의 거래상대방으로 선정됨에 따른 평판제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동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대상기관 선정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항을 미리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표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안증권 대상기관 중 증권사가 3개 줄어든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 미달기관이 5개가 발생하여 전체 기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이 거래대상기관수를 20개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당행도 중기적으로 대상기관수를 어떠한 수준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책협조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정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림으로써 당행 정책에 대한 금융기관의 호응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